지상법석 ★

절제할 때 안락얻어”

“물질적인 집착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히려 인성을 황량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연이 다하면 여지없이 나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고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의 도리로 봅시다. 나도 무상한 하나의 중생에 불과하고 지금 내가 가진 물건도 무상한 물건 하나일 뿐인데 소유한다거나 소유된다는 믿음은 얼마나 가소로운 것입니까. 그러니 집착하고 탐하는 마음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나와 인연이 있어 만남을 이룬 것일 뿐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때 우리는 탐욕도 집착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잘 살고 있다는 믿음이 산업사회를 지배하고 있지만 누가 이 풍요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오늘의 풍요가 반드시 내일의 풍요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해서 내생이 행복해 질것이라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소유의 한계는 너무나 얕은 것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 곳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으니 물질적인 집착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인성을 황량하게 만들 뿐입니다.

헛된것에 대한 믿음을 바꿔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쌓고 탐욕의 마음을 없애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깨달음을 이룬자의 열반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무상의 도리를 잘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전동차가 제동장치도 없이 마구 달리고 있다는 위험성을 깨닫기 위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불타는 욕망을 버리고 스스로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원력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하는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밝혀 놓으신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것이 없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소탈하게 할 것이고 지금의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은 우리를 겸허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도 무상의 도리를 알고 나면 겸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삶의 과정에서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나 글로는 다 이해하고 수긍을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백가지를 알고 실천 못하는 것보다 값진 일인데 우리는 늘 실천의 문제에서 자신을 잃고 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병은 그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약방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의 문제에서 자신감을 못 갖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이유도 앞에서 말한 욕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못하면 계속되는 고통의 삶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과정이 모두 수행의 과정입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아만심을 버리고 나로인해 이 세상이 있다는 편견을 버리며 사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인연되어 만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인연 맺은 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란 착각을 버리면 됩니다. 나의 소유물도 남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니 주인행세에 너무 마음쓸 일도 없습니다. 요즘같은 물질만능 시대를 잘 사는 방법도 ‘내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겸허하게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것과 네것을 구별해 다투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롯이 나를 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극락을 가꾸는 세상인 겁니다.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를 위한 또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귀의(歸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귀의란 그대로 돌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돌아가 무엇에 의지하란 말입니까. 허상을 보고 허상을 쫓아 사는 나의 망념에서 돌아가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자기화시키는 승가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때때로 부처님께로 돌아가 그 위대한 가르침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중생계는 빛나는 불국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국토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허한 삶의 자세로 돌아가 의지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우리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삼보는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주머니 속 소유물마저도 진정한 내것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상의 도리 알아내는 것이 수행

“나의 것이 없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소탈하게 하고
현재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믿을때 우리는 겸허하게 됩니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오늘의 풍요가 반드시 내일의 풍요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한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해서 내생이 행복해 질것이라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소유의 한계는 너무나 얕은 것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한 곳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으니 물질적인 집착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인성을 황량하게 만들 뿐입니다.

헛된것에 대한 믿음을 바꿔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쌓고 탐욕의 마음을 없애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이란 바로 깨달음을 이룬자의 열반락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무상의 도리를 잘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전동차가 제동장치도 없이 마구 달리고 있다는 위험성을 깨닫기 위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은 불타는 욕망을 버리고 스스로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원력이 되어야 합니다. 수행하는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밝혀 놓으신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것이 없다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소탈하게 할 것이고 지금의 행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은 우리를 겸허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도 무상의 도리를 알고 나면 겸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삶의 과정에서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나 글로는 다 이해하고 수긍을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백가지를 알고 실천 못하는 것보다 값진 일인데 우리는 늘 실천의 문제에서 자신을 잃고 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병은 그 원인이 있고 거기에 따른 약방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의 문제에서 자신감을 못 갖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그 이유도 앞에서 말한 욕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욕망을 낮추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못하면 계속되는 고통의 삶을 감당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과정이 모두 수행의 과정입니다. 내가 제일이라는 아만심을 버리고 나로인해 이 세상이 있다는 편견을 버리며 사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인연되어 만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고 인연 맺은 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란 착각을 버리면 됩니다. 나의 소유물도 남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니 주인행세에 너무 마음쓸 일도 없습니다. 요즘같은 물질만능 시대를 잘 사는 방법도 ‘내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겸허하게 모든 대상을 인식하는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것과 네것을 구별해 다투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오롯이 나를 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이 극락을 가꾸는 세상인 겁니다.

탐심을 버리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자세를 위한 또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귀의(歸依)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귀의란 그대로 돌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돌아가 무엇에 의지하란 말입니까. 허상을 보고 허상을 쫓아 사는 나의 망념에서 돌아가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자기화시키는 승가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때때로 부처님께로 돌아가 그 위대한 가르침에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중생계는 빛나는 불국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국토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허한 삶의 자세로 돌아가 의지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우리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삼보는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71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⑧

색즉시공은 실상표현…만물 상호작용

전체가 하나 이루며 제각각 역할 달라

적극적 의미의 空

입자와 입자 사이에 힘을 주고 받는 상호작용을 물리학자들은 수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화인만 그래프(Feynman Graph)라는 그림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물리적 진공을 이루는 가상입자들과 우리의 경험세계에서 보는 입자들 모두가 또다른 가상입자들로 연결되어 색(色)이나 공(空)이나 구별없이 전체가 하나를 이룬다. 가상입자들이라 해서 보이는 입자와 다른 것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기에 그렇게 부를 뿐 보이는 입자나 보이지 않는 입자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그러니 이 물질세계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겠는데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모든 것이 환상이요 꿈이라는 뜻으로 이말을 해석한다. 색즉시공은 결코 그런 허무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전체가 하나를 이룬다는 뜻이다. 바로 연기설을 뜻한다.

진공이나 소립자를 떠나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만 생각하더라도 책상이 여기에 있고 벽이 저기에 있어 딱딱한 무엇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책상이나 벽을 이루는 물질의 입자들과 우리 몸의 입자들이 전자기적(電磁氣的)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몸이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않는 중성미자(中性微子, meutrino)라는 입자로 되어 있다면 우리 몸은 만리장성이라도 텅빈 공간처럼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리장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와 태양사이를 납으로 채워 놓더라도 우리몸은 텅빈 공간을 통과하듯 그것을 뚫고 나갈 것이다. 물론 중성미자도 약력(weak interaction)과 중력(重力)을 통해 다른 입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색즉시공은 환경보호를 뜻하기도 한다.

바다에 사는 산호는 값싼 보석으로나 소용될까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큰 관계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알고보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기중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구상에 원시생물들만 살던 수십억년전의 지구 대기중에는 탄산가스가 너무 많아 고등생물이 살 수 없었다. 이 지상에서 탄산가스를 제거하여 사람이 살수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산호다. 공기 중의 탄산가스와 바다속의 칼슘을 결합하여 석회석을 만든 것이 바로 산호고 이 석회석은 시멘트의 원료이니 산호와 사람의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산호뿐 아니라 독사나 지네 거미 파리는 물론 박테리아 마저도 다 저마다 맡은 바 역할이 있어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색즉시공은 이것을 가리키는 적극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 모든 것이 꿈에 불과한 허무적인 뜻으로 색즉시공을 해석하기도 한다. 전체를 하나로 꿰뚫어 보는 반야지가 없으니 그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수는 없으나 분별지로써도 물리학은 전체가 하나임을 설명할 수 있으니 색즉시공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달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연기설을 주장하느냐고 누군가가 불교를 공격했지만 이것은 머리털이 하나 빠진다고해서 무슨 큰일이냐고 우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씩 둘씩 빠지면 분명히 대머리가 되니 머리세포를 건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물(微物)이건 무생물이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어찌 함부로 생명있는 것을 죽일 수 있겠으며 생명없는 것이라고 해서 어찌 함부로 파괴할 수 있겠는가? 불교적 윤리의 핵심을 이루는 자비 보시는 바로 전체가 더불어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색즉시공의 공사상(空思想)을 깨달으면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공(空), 이것은 모든 것의 실상을 표현하는 말이며 적극적인 윤리를 가르치는 말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3가 7/4 458
● 전화 : 238-3285

사단법인 성 양 원
원장 석 정 혜
성양원후원회원 일동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산 17-1
● 전화 : 0591-44-2181
● 팩스 : 0591-44-2180

대한불교조계종 포항 대성사
주지 송 학
대중 일동
● 포항시 용흥동 534번지
● 전화 : 0562-47-7563

증심사
주지 영 조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 전화 :062-226-0107

원효사
주지 현 지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 전화 : 062-262-0321

18교구본사 백양사 포교당
관 음 사
◆호남불교대학
보문유치원
관음문화원
신도회일동
주지 도 성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 54-1
● 전화 : 223-7666, 224-3335

덕명사
주지 무 등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1동 238-33
● 전화 : 062-365-0367

선덕사
선덕사 유치원
주지 행 법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3동 572-1
● 전화 : 062-263-4660, 264-8024

봉 축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세심정사
주지 지 암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58
● 전화 : 062-222-9442

법림사
신도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
● 전화 : 062-234-2207

신광사
주지 경 주
신도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1동 193
● 전화 : 062-261-1529

불갑사
대 중 일 동
신 도 일 동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 전화 :0686-52-8097

용흥사
주지 원 실
●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 전화 : 0684-82-0574

군산 흥천사
신도 일동
● 전북 군산시 금동 2-17
● 전화 :0654-445-3769

쌍봉사
주지 관 해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증리 741
● 전화 : 0612-72-3765

광주불교능인회
· 광주불교 능인회 새마을금고
· 사단법인 광주불교 능인문화원
· 능인회 상조회
회장 김두원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0-7
● 전화 : 062-226-5161~4